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1, 67-82

## 사회적 위협조건하에서 알콜이 사회불안자의 자기초점화 주의에 미치는 영향<sup>†</sup>

김 은 희<sup>†</sup>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Hull(1981)의 자기-인식 이론(Self-awareness Theory)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불안 수준과 알콜기대 정도가 모두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협조건하에서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체 716명의 참가자 중 사회불안 수준이 상위 30%내에 속하고, 동시에 알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정도가 상위 50%에 속하는 45명의 남녀대학생들이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알콜조건 및 위약조건 그리고 사회적 위협조건 및 비위험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실험 참가자 모두 주의-초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실험 결과 알콜집단과 위약집단간에 자기초점화 주의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Hull(1981)의 이론과 상반되는 것으로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기대했던 대로 사회적 위협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은 비위험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기초점화 주의가 더 높았다. 또한 알콜은 사회적 위협상황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에서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초점화 주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단서들의 존재에 상관없이 알콜은 사회불안자의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알콜, 사회불안, 자기초점화 주의, 사회적 위협

† 이 논문은 김은희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희,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TEL : 033-241-1531, E-mail : buzadeza@hanmail.net

사회불안장애 또는 사회공포증은 창피하고 당황스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장면이나 수행 상황들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는 불안장애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거의 항상 즉각적인 불안반응들이 유발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알콜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 보고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불안 증상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알콜을 더 많이 소비하고(Kidorf & Lang, 1999), 불안증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술을 더 자주 마시며(Samoluk & Stewart, 1998; Stewart, Peterson, & Pihl, 1995), 두려움에 대처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Stewart & Zeitlin, 1995). 또한,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알콜장애로 진단 받을 위험이 50%나 높으며, 특히 사회공포증으로 진단 받은 사람들이 이후 알콜남용이나 의존으로 진단받을 위험은 2.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mle & Hill, 1991; Regier, Farmer, Rae, & Locke et al., 1990). 이처럼 사회공포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후 알콜사용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불안증상들에 대한 자가-치료의 목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알콜이기 때문이며(Chambless, Cherney, Caputo, & Rheinstein, 1987; Schneier, Martin, Liebowitz, Gorman, & Fyer, 1989), 또한 알콜이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O'Hare, 1990).

사회불안장애 또는 사회공포증에 대한 이론들은 불안한 사람들이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처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인지과정을 설명하면서 자

기초점화 주의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기초점화 주의(self-focused attention)란 자기와 관련된 내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에 주의적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Ingram, 1990).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자기초점화 주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과 감정, 태도, 기분 및 신체적 상태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Clark와 Wells(1995)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모델을 제안하면서 자기초점화 주의가 사회공포증의 유지와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보를 찾고 그것에 몰두한다. 따라서 그들은 빈약한 수행과 부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이미 우울해진 상태에서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들의 주의를 환경과 타인에 대한 관찰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세밀한 감시와 관찰로 바꾼다. 이와 같은 자기초점화 주의를 그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정보처리 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내적으로 산출된 불안반응들을 더 뚜렷이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 사회공포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위협적인 대인관계 상황들에 노출될 때 거의 항상 유발되는 불안과 긴장으로부터 안정을 찾기 위해 알콜을 소비한다. 또한 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

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문해 볼 수 있다. 만약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면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이러한 효과로 인해 알콜사용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콜이 불안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에 알콜소비를 점점 더 증가시킨다면 결국 이들은 알콜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알콜과 자기초점화 주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Hull(1981)은 알콜소비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자기-인식 이론(Self-awareness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알콜은 정보를 자기와 관련지어 처리하는 인지과정을 손상시킴으로써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즉 (a) 자기-인식은 자기-도식을 통해 정보를 자기(self)와 관련지어 부호화하는 과정과 연관된다(Hull & Levy, 1979), (b) 알콜은 보다 높은 순위의 도식에 작용하여 복잡한 부호화 및 정교화 책략들의 활용을 방해한다(Bimbaum, Johnson, Hartley, & Taylor, 1980), (c) 그러므로 알콜은 정보를 자기와 관련지어 부호화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자기-인식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Hull, Levenson, Young과 Sher(1983)는 2개의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알콜과 토닉음료 중 하나를 소비하고, 그 다음 자기자신에 대해 짧은 발표를 하였다. 즉흥발표는 Exner(1973)의 문장완성 검사를 사용하여 자기초점화된 진술들과 1인칭 대명사의 사용빈도를 코드화하였다. 기대했던 대로, 알콜은 자기초점화된 진술들의 빈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알콜이 어떻게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

키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했으므로 두 번째 실험을 설계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알콜 혹은 위약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여러 형용사들이 제시되는 기억 패러다임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위약조건에서, 자의식이 높은 참가자들은 자의식이 낮은 참가자들보다 자기-관련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그러나 알콜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알콜이 자의식이 높은 참가자들의 자기-관련된 단어의 회상을 방해함으로써 자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를 제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알콜이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의 부호화 과정을 손상시킴으로써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ull(1981)의 자기-인식 이론에 대한 이후의 실험결과들은 일관되지 못했다. Wilson(1983)은 자기-인식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실험들을 검토하고서, 알콜이 항상 자기-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Keane과 Lisman(1980)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남성참가자를 술에 취한 조건과 취하지 않은 조건으로 할당한 다음 여성 공모자와 상호작용 동안에 했던 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술에 취한 참가자들은 취하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자기-평가적인 말을 하였다. 또한 Frankenstein과 Wilson(1984)도 배우자 중 한 명이 알콜중독인 커플의 대화를 만취조건과 취하지 않은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만취상태에서 자기초점화된 문장이나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감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Hull과 Reilly(1983)는 자기-인식

을 증가시키는 상황적 맥락들은 만취되었을 때 유도되는 자기초점화 주의의 감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인식을 증가시키는 실험적 맥락에는 거울(Carver & Scheier, 1978), 비디오 녹화를 한다고 알려줌(Davis & Brock, 1975), 일대일 상호작용(Scheier, Fenigstein, & Buss, 1974), 역할 연기 활동(Stephenson & Wicklund, 1983), 그리고 평가적인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외부단서들은 지나친 자기-인식을 이끌기 때문에 그 결과, 만취되었을 때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는 알콜의 모든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Carey(1995)는 자기초점화 주의를 증가시키는 상황적 단서들이 없을 때에만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Hull과 Reilly(1983)의 주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알콜 혹은 위약음료를 소비한 참가자들은 높은 자기-초점(거울있음)과 낮은 자기-초점(거울없음) 조건에 할당되었고 모두 자기초점화된 문장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약조건하에서 거울의 존재는 기대했던 대로 자기초점화 주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알콜 또한 거울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알콜은 외부의 정보를 자기와 관련시켜 처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Hull(1981)의 자기-인식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처럼 자기초점화 주의에 대한 알콜의 영향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에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알콜실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알콜조건과 위약조건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 이

유는 알콜을 마셨다는 기대감은 계속 유지시키면서 알콜의 약리적 효과를 조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알콜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알콜을 마셨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알콜이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알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제 위약을 마셨지만 알콜을 마셨다고 믿은 사람들 중에서, 알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는 주관적인 불안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알콜기대 정도가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콜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산출하는데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자기초점화 주의의 측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초점화 주의는 자의식 척도(Carver & Scheier, 1978)의 하위 척도인 사적 자의식 척도를 사용하거나, 자기초점화된 문장완성 검사(Exner, 1973)를 사용하여 주로 측정하였다(Carey, 1995; Hull, Levenson et al., 1983). 그러나 이 두 척도들은 사고나 감정과 같은 내적인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의 특질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므로, 실험실에서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자기초점화 주의를 측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동안에 경험되는 상황적인 주의의 초점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Hull(1981)의 자기-인식 이론을 검증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불안 수준과 알콜기대 정도가 모두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화 주의에 대한 알콜의 영향은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에서 평가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즉흥발표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유도하는 가장 신뢰로운 방법임이 입증되었으므로(Beidel, Turner, & Dancu, 1985), 본 실험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작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비디오카메라 앞에서 즉흥발표를 하는 과제를 주었다.

Hull(1981)에 의하면, 알콜을 마신 참가자들은 위약을 마신 참가자들보다 자기초점화 주의가 더 낮을 것이다. 한편 Clark과 Wells(1995)에 의하면, 사회적 위협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은 비위협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기초점화 주의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알콜조건과 사회적 위협조건은 자기초점화 주의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가진다. 또한 Hull과 Reilly(1983)는 자기초점화 주의를 증가시키는 상황적인 단서들이 있다면, 만취되었을 때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는 알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알콜을 마셨더라도 사회적 위협상황에 직면했다면 자기초점화 주의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방 법

###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과목을 듣는 716명의 남녀대학생들에게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실시하여, 두 척도 모두에서 상위 30%내에 속하는 참가자를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30%내에 속하는 참가자는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알콜기대감 질문지를 실시하여 상위 50%내에 속하는 참가자를 알콜기대 정도가 높은 집단에 포함시켰다. 참가자들은 모두 음주량 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적어도 월 2-3회 이상, 한 번 마실 때 맥주를 기준으로 1000~3000cc 정도를 마시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사회불안 수준과 알콜기대감이 모두 높은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본 실험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험참여를 거절하거나 알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참가자들을 제외한 총 45명(남자24명, 여자 21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참여하기 24시간 전부터 알콜을 마시지 말고, 실험 약속 전 적어도 4시간 동안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알콜실험'에 참여한다고 말해주어서 알콜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실험참가자에게는 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제공되었다.

### 측정도구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하고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였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총 28문항으로 5점 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의  $\alpha$ 계수)는 .92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하고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전체 1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알콜기대감 질문지.** Brown, Christiansen과 Goldman(1987)이 제작하고 김현주(1992)가 번안하였으며 진위형의 총 5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전반적인 긍정적 변화, (2) 신체적 및 사회적인 쾌, (3) 사회적 주장성 증가, (4) 신체적 이완과 긴장감소.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음주량 질문지.** 지난 3개월 동안 1회 평균 주량과 음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희진(2000)이 제작한 음주량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회 평균 주량을 알아보기 위해 보통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와 소주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한 후, 알콜도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동등한 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주의-초점 질문지.** Chambless와 Glass(1984)가 특정 사회적 상황들에서 주의의 초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초점(FAQ<sub>self</sub>)과 외부-초점(FAQ<sub>external</sub>)의 2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75였다.

**주관적인 취함 척도.** 두 개의 단일 척도로 구성되며 알콜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알콜 혹은 위약조건에 있는 참

가자들은 자신이 취한 정도를 0(전혀 취하지 않았음)~10(여태 이렇게 취해본 적이 없음) 사이에서 평정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알콜의 양을 맥주 혹은 소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하였다.

**기분 질문지.** Zuckerman과 Lubin(1965)이 현재의 감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관련된 정서 단어 10개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기.** 참가자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성전자에서 제작한 음주측정기(모델명 AS-110)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방식으로 혈중알콜 농도를 0.00~0.99%의 범위 내에서 표시해준다.

## 독립변인 조작

**알콜 조작.** 알콜조건의 음료는 보드카+토닉+레몬주스로 만들어졌다. 이중 알콜조건의 피험자가 마실 보드카(80 proof)의 양은 1ml/kg이며, 이는 혈중알콜 농도를 0.05%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양이다(Carey, 1995; Hull, Levenson et al., 1983; Hull & Reilly, 1983). 보드카와 토닉은 1:4의 비율로 혼합되어 2개의 유리잔에 동일하게 나눠지고, 각 잔에는 레몬주스가 분사된다. 만약 참가자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참가자가 마실 전체 음료의 양은 300ml이며 이중 보드카는 60ml가 된다. 위약조건의 음료는 보드카 대신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토닉을 넣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절차가 알콜조건과 동일하다. 위약조건에서는 참가자가 도착하기 전에 3ml의 보드카를 각 유리잔에 떨어뜨렸는데, 이는 음주측정기에 탐지되지 못할 정도의 양이다. 또한 소량의 보드카를 유리잔의 가장자리에 발라놓았는데, 이는 참가자에게 알콜에 대한 후각 단서와 미각 단서를 첫 번째 인상으로 주기 위함이다.

**위험적인 사회적 상황 조작.** 알콜조건과 위약조건에 있는 참가자들 중 반은 사회적 위협유도를 받고, 나머지 반은 비위협 조건에 할당되었다. 사회적 위협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은 '사형제도의 이득과 손실'이라는 내용으로 즉흥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주제는 자기초점화 주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각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사회적 위협조건>**

이 실험의 다음 단계는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발표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형제도의 이득과 손실'이라는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2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답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발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발표하는 모습은 앞에 설치된 캠코더에 녹화가 될텐데, 이 자료는 나중에 임상심리전문가들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간단히 발표준비를 하시고 30초가 지나서 캠코더가 start되면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이때, 참가자가 발표를 하는 동안 실험자는 참가자의 시야 바깥쪽에서 여러 측정치들에 대해 평가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

**<비위협 조건>**

잠시 후에 다음 실험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에 필요한 몇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는 동안 의자에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으니 책을 보지말고 기다려주십시오.

참가자는 약 2분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실험 절차**

각 참가자들은 수업이 없는 오후나 저녁에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참가자는 몸무게를 재고 기분질문지 사전검사를 작성하였다. 참가자가 질문지를 완성하는 동안 실험자는 참가자가 보는 앞에서 술을 준비하였다. 즉 알콜 및 위약조건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은 보드카 병과 토닉 병을 모두 보았고, 실험자가 눈금이 새겨진 실린더에 자신이 마실 음료를 섞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이전에 알콜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구강청정제인 가그린으로 입 속을 헹구라고 하면서, 이는 정확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맛의 예민함을 떨어뜨려서 자신이 마신 음료에 알콜이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다(Carey, 1995).

술이 준비되면 참가자를 실험실과 분리된 옆방으로 안내한 후 주어진 음료를 10분내에 천천

히 나누어 마시라고 하였다. 술을 모두 마시고 나면 술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20분을 더 주었다. 음료 소비기간(10분)과 흡수기간(20분)동안 읽을거리로 내쇼널지오그래픽과 영화잡지를 주었다. 흡수기간이 지나면 참가자는 두 번째 혈중알콜 농도를 잰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현재 술 취한 정도와 자신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알콜의 양을 주관적인 취함 척도 상에 평가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는 주로 어떤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지와 술을 마시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약 1분간 실험자와 간단한 대화를 하였다. 이 때 혈중알콜 농도는 최고에 이르게 되며, 참가자는 다음 단계로 사회적 위협조건 혹은 비위협 조건에 할당된다.

앞서 기술된 실험절차에 따라 사회적 위협조건 혹은 비위협 조건의 실험을 마친 후, 참가자는 기분질문지 사후검사와 주의-초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알콜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의 혈중알콜 농도를 체크하여 서서히 알콜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절차가 모두 끝나면 참가자에게 실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준비해둔 도서상품권을 주었다. 아울러 본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실험의 내용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 실험 설계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협조건하에서 알콜이 사회불안자의 자기초점화 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화 주의에 대한 알콜의 영향은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모두에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2(알콜조건/위약조건)×2(사회적 위협조건/비위협조건)의 피험자간 요인설계

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에는 윈도우용 SPSS 10.0 버전을 사용하였다.

## 결 과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사회적 회피( $M=3.35$ ,  $SD=0.27$ ), 부정적 평가( $M=4.08$ ,  $SD=0.36$ ), 알콜기대( $M=33.6$ ,  $SD=6.35$ ) 및 음주량( $M=5.73$ ,  $SD=1.94$ )과 음주빈도( $M=3.42$ ,  $SD=0.92$ )의 평균분포를 보이며, 모든 척도들에서 네 실험 집단 간에 점수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점수에서 여자( $M=4.20$ ,  $SD=0.36$ )가 남자( $M=3.97$ ,  $SD=0.34$ )보다 유의미하게 더 컸고,  $F(1, 41)=6.45$ ,  $p<.05$ , 이외에 성별에 대한 주효과와 성별과 집단간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성차는 고려하지 않았다.

### 알콜 처치의 타당도 검증

알콜의 흡수기간이 지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는 알콜 및 사회적 위협조건( $M=.05$ ,  $SD=.01$ )과 알콜 및 비위협 조건( $M=.05$ ,  $SD=.01$ )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20)=1.163$ ,  $ns$ . 위약조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인 취함 척도에 포함된 두 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술 취함 정도를 0~10점 척도 상에 평가하였는데, 여기에서 알콜조건( $M=3.16$ ,  $SD=1.43$ )과 위약조건( $M=1.80$ ,  $SD=1.19$ )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43)=3.45$ ,  $p<.001$ . 즉, 알콜음료를 마신 참가자들은 위약음료를 마신 참가자들보다 더 술에 취했다고 느꼈



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마셨다고 생각되는 술의 양을 소주로 변환했을 때에는 알콜조건( $M=3.73$ ,  $SD=1.03$ )과 위약조건( $M=3.17$ ,  $SD=1.15$ )간에 차이가 없었다,  $t(43)=1.69$ , *ns*. 그러므로 알콜 처치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실제 알콜을 마신 참가자들이 위약을 마신 참가자들보다 술에 더 취했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사회적 위협 처치의 타당도 검증

사회적 위협상황을 조작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즉흥발표 과제를 주고 이를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사회적 위협조건과 비위협 조건에서 처치 전·후에 실시된 기분질문지의 불안점수 상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처치 전에는 두 집단의 불안점수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처치 후에는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위협조건에 참가자들이 비위협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불안이 더 크게 보고하였다. 사회적 위협상황이 두 집단에 미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처치 후 불안점수에서 처치 전 불안점수를 뺀 값을 불안점수 변화량으로 산출하였다.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위협조건에 참가자들은 처치로 인해 불안이 더 증가되었지만 비위협 조건의 참가자들은 처치 후에 불안이 오히려 더 감소되었다. 그러므로 즉흥발표 과제는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을 조작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알콜과 사회적 위협상황에 따른 자기초점화 주의

자기초점화 주의에 대한 알콜과 사회적 위협상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가 표 3에 제시

표 1. 각 실험집단의 주관적인 취함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술 취함 정도	소비한 술의 양
알콜조건			
사회적 위협조건	11	4.00(1.32)	4.18(0.60)
비위협 조건	11	2.32(1.01)	3.27(1.19)
위약조건			
사회적 위협	12	1.46(0.92)	2.92(1.24)
비위협 조건	11	2.18(1.38)	3.45(1.12)

주. 소비한 술의 양은 소주잔 기준임.

표 2. 사회적 위협 처치 전·후의 집단간 불안점수에 대한 *t* 검증

	사회적 위협	비위협	<i>t</i>
처치 전	3.28(1.02)	3.31(.75)	.10
처치 후	3.43(1.08)	2.54(.95)	2.95**
불안점수 변화량	.15(1.01)	-.77(.75)	3.46***

주. \*\* $p < .01$  \*\*\* $p < .001$

표 3. 알콜과 사회적 위협상황에 따른 자기초점화 주의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알콜조건		
사회적 위협조건	11	3.38(.61)
비위협 조건	11	2.80(.71)
위약조건		
사회적 위협	12	3.73(.54)
비위협 조건	11	2.96(.89)

되어 있다. 알콜 집단( $M=3.09$ ,  $SD=.71$ )과 위약 집단( $M=3.37$ ,  $SD=.82$ )간에 자기초점화 주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F(1, 41)=1.53$ ,  $ns$ . 따라서 알콜은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위협 집단( $M=3.57$ ,  $SD=.59$ )과 비위협 집단( $M=2.88$ ,  $SD=.79$ )간에 자기초점화 주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41)=10.53$ ,  $p<.01$ .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위협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은 비위협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기초점화 주의가 더 높았다. 그러나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41)=.20$ ,  $ns$ . 다만 위약음료를 마시고 사회적 위협상황에 처한 참가자들이 가장 높은 자기초점화 주의를 보였으며, 알콜음료를 마시고 사회적 위협이 없었던 참가자들이 가장 낮은 자기초점화 주의를 나타내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Hull(1981)의 자기-인식 이론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불안 수준과 알콜기대가 모두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위협조건에서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알콜조건과 위약조건간

에 자기초점화 주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에 자기초점화 주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알콜은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알콜이 정보를 자기와 관련지어 부호화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Hull(1981)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콜이 항상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다양한 영향들을 가질 수 있다는 Wilson(1983)의 설명과는 부합한다. 예를 들어 Keane과 Lisman(1980)의 연구에서는 술에 취한 참가자들이 취하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자기-평가적인 말을 더 많이 하였으며, Frankenstein과 Wilson(1984)이 알콜중독 커플의 대화를 분석했을 때에는 만취조건과 취하지 않은 조건간에 자기초점화 주의에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Hull(1981)의 자기-인식 이론에서 나온 예측들과는 다르지만, 자기-인식 이론의 일반화에 대해 제한점을 시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위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기초점화 주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위협조건에 있는 참가자들이 비위협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기초점화 주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불안을 일

으키는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주의의 초점을 자기자신에게 돌린다는 Clark과 Wells(1995)의 설명과 일치한다. 즉 실험자에게 평가되고 비디오로 녹화되는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는 상황은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킬 만큼 충분히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염려하거나 과거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잘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그 결과 자기자신을 세밀히 관찰하는 것으로 초점을 두어 자기초점화 주의가 증가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초점화 주의는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을 유지하고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자기초점화 주의가 사회공포증을 위한 치료적 변화에서도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의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은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고 외부상황이나 타인에게 주의를 돌리도록 하며, 자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Hartman, 1983; Hofmann, 2000; Ingram, 1990; Woody, Chambless, & Glass, 1997).

한편, 위협적인 상황적 단서가 없을 때에만 알콜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Hull과 Reilly(1983)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알콜은 사회적 위협상황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못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arey(1995)의 연구에서는 알콜이 거울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기초점화 주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도 사회공포

증이 있는 사람들을 즉흥발표와 같은 위협적인 자극에 직면시킨 거의 모든 연구들은 알콜이 불안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Himle, Abelson, Haghightgou, Hill, & Nesse, 1999; Naftolowitz, Baughn, Ranc, & Tancer, 1994).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들은 알콜이 좀처럼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콜이 불안증상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알콜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알콜이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조차도,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술 마시기를 그만두기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취할 수준이 되면 불안증상이 가라앉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알콜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다 보면 결국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과대음주나 알콜사용 장애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일반인이나 사회공포증 환자에게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생 집단은 학력이나 연령, 경제적 수준 등이 보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의 수준이 다양한 일반인에게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콜의 소비와 사회적 위협이 모두 실험실 상황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생활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실험 참여자들은 모두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낮은 실험실에 혼자 참여해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안해진 상태에서 실험에 들어갔을 수 있다. 또한 실험이 진행되는 약 50여분 동안에 실험자와 단 둘이 실험실에 있다는 것은, 비록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 실험자가 노력했다하더라도,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대학생에게 부가적인 위협상황으로 작용하여 자기초점화 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제상황에서의 알콜과 사회적 위협의 영향이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

셋째, 자기초점화 주의의 측정이 민감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자기초점화 주의는 사회적 위협 상황이 끝난 후 이를 회상케 하여 질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혹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편향들을 나타내며(Mellings & Alden, 2000), 불안관련 행동들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이혜경, 1998), 자기초점화 주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민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발표내용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두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지하기 위한 통계적인 검증력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특히 각 실험집단의 부정적 평가 점수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네 가지 실험조건에 속한 남녀의 수가 너무 적었으므로 점수상의 변화가 보다 민감하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참여자 716명중에서 사회불안 측정치들과 알콜기대감 및 음주량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으므로 더 큰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약하면, 알콜은 사회불안자의 자기초점화 주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알콜이 사회적 상호작용 동안에 유발되는 불안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윤희제 역할을 한다는 대중적인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알콜의 영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알콜 투여의 양을 달리하고 사회적 위협자극을 변화시켜 실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알콜기대와 관련된 변인을 실험에 포함시켜 알콜기대감의 영향을 보다 세부적이고 직접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알콜사용과 그 효과에 관심을 두고, 알콜이 불안을 매개하는 자기초점화 주의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사회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고 의논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회공포증의 경로에 들어가게 되거나 다른 장애와의 공병으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클리닉이나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알콜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과대음주나 알콜사용 장애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콜이 좀처럼 불안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최근의 연구들에 부합하는 증거를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자들의 부적응적인 음주행동에 경고와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알콜사용에 대한 초기 예방과 치료 프

로그램을 설계하는데도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현주 (1992). 알콜이 긴장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 (2000). 생활경험과 감각추구성이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51-264.
- 이혜경 (1998). 사회공포증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R.). Washington, DC: Author.
-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 Birnbaum, I. M., Johnson, M. K., Hartley, J. T., & Taylor, T. (1980). Alcohol and elaborative schema for sent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 293-300.
- Brown, S. A., Christiansen, B. A., & Goldman, M. S. (1987). The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n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and adult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483-491.
- Carey, K. B. (1995). Effects of alcohol intoxication on self-focused atten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248-252.
- Carver, C. S., & Scheier, M. F. (1978). Self-focusing effects of dispositional self-consciousness, mirror presence, and audience presence.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36, 324-332.
- Chambless, D. L., Cherney, J., Caputo, G. C., & Rheinstein, B. J. (1987). Anxiety disorders and alcoholism: A study with inpatient alcohol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 29-40.
- Chambless, D. L., & Glass, C. R. (1984). *The Focus of Attention Questionnaire*.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Liebowitz, D. Hope & F.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ment,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avis, D., & Brock, T. C. (1975). Use of first person pronouns as a function of increased objective self-awareness and prior feedbac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381-388.
- Exner, J. E. (1973). The self focus sentence completion: A study of egocentric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7, 437-455.
- Frankenstein, W., & Wilson, G. T. (1984). Alcohol's effects on self-awareness. *Addictive Behaviors*, 9, 323-328.
- Hartman, L. M. (1983). A metacognitive model of social anxiety: Implications for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 435-456.
- Himle, J. A., Abelson, J. L., Haightgou, H., Hill, E. M., & Nesse, R. M. (1999). Effect of alcohol on social phobic anxiet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237-1243.

- Himle J. A., & Hill, E. A. (1991). Alcohol abuse and the anxiety disorders: evidence from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urvey. *Journal of Anxiety Disorder, 5*, 237-245.
- Hofmann, S. G. (2000). Self-focused attention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717-725.
- Hull, J. G. (1981). A self-awareness mod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586-600.
- Hull, J. G., Levenson, R. W., Young, R. D., & Sher, K. J. (1983). Self-awareness-reducing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461-473.
- Hull, J. G., & Levy, A. S. (1979). The organizational functioning of the self: An alternative to the Duval and Wicklund model of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37*, 756-768.
- Hull, J. G., & Reilly, N. P. (1983). Self-awareness, self-regulation, and alcohol consumption: A reply to Wils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514-519.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Keane, T. M., & Lisman, S. (1980). Alcohol and social anxiety in males: Behavioral, cognitive, and physiological effect. *Journal of Psychology, 89*, 213-223.
- Kidorf, M., & Lang, A. R. (1999).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alcohol expectancies on stress-induced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3*, 134-142.
- Mellings, T. M., & Alden, L. E. (2000).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anxiety: The effects of self-focus, rumination and anticipatory processing.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343-257.
- Naftolovitz, D. F., Baughn, B. V., Ranc, J., & Tancer, M. E. (1994). Response to alcohol in social phobia. *Anxiety, 1*, 96-99.
- O'Hare, T. M. (1990). Alcohol expectancies and social anxiety i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s. *Addictive Behaviors, 15*, 561-566.
- Regier, D. A., Farmer, M. E., Rae, D. S., Locke, B. A., Keith, S. J., Judd, L. L., & Goodwin, F. K. (1990). Comorbidity of mental disorders with alcohol and other drug abuse: Results from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ECA)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4*, 2511-2518.
- Samoluk, S. B., & Stewart, S. H. (1998). Anxiety sensitivity and situation-specific drink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407-419.
- Scheier, M. S., Fenigstein, A., & Buss, A. H. (1974). Self-awareness and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64-273.
- Schneier, F. R., Martin, L. Y., Liebowitz, M. R., Gorman, J. M., & Fyer, A. J. (1989). Alcohol abuse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 15-23.
- Stephenson, B., & Wicklund, R. A. (1983). Self-directed attention and taking the other's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58-77.
- Stewart, S. H., Peterson, J. B., & Pihl, R. O. (1995). Anxiety sensitivity and self-reported alcohol

- consumption rates in university wom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9, 283-292.
- Stewart, S. H. & Zeitlin, S. B. (1995). Anxiety sensitivity and alcohol use motiv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9, 229-240.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ilson, G. T. (1983). Self-awareness, Self-regulation, and alcohol consumption: An analysis of Journal of Hull's model. *Journal Abnormal Psychology*, 92, 505-513.
- Woody, S. R., Chambless, D. L., & Glass, C. R. (1997). Self-focused attention in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Therapy*, 35, 117-129.
- Zuckerman, M., & Lubin, B. (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ego, CA: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원고 접수: 2005년 2월 4일

게재 결정: 2005년 3월 14일

# The Effects of Alcohol on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under Social Threat Conditions

Eun-Hee Kim

In-Hey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Hull(1981)'s Self-Awareness Theory that alcohol intoxication reduces self-focused attent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threat and no-threat condition on self-focused attention under alcohol or placebo condition. The 45 students with social anxiety scores(SADS, FNE) in the higher 30%ile and alcohol expectancy scores(AEQ) in the higher 50%ile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alcohol or placebo groups and the social threat or no-threat groups. And they completed the Focus of Attention Questionnaire. At the resul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self-focused attention between the alcohol group and the placebo groups, contrary to Hull's theory. As expected, the social threat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elf-focused attention than no-threat group. This finding suggests that alcohol does not always reduce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lcohol, social anxiety, self-focused attention, social threat